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친구 관계 형상화 연구*

김현주**

-차 례-

1. 서론
2. 유년 시절의 불안정한 친구 관계 형상화
3. 중년 여성의 친구와의 비교우위를 통한 자기 확인
4. 허위의식 비판과 자기 성찰의 양상
5. 결론

*이 논문은 2024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조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박완서 소설의 친구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정체성 및 자기 인식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유년 시절, 엄마의 문안의식에 영향을 받은 주인공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며 결속력 있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서사는 고향 박적골과 서울 안팎이라는 공간에 따른 상이한 친구 관계와 내적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인 삶의 공간에서 겪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중년 여성의 경우, 친구와의 비교우위를 통한 자기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서사에서는 가부장제 질서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이나 경제적인 것이 비교의 잣대가 되는 한계를 부각한다. 한편, 자기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우정의 취약함, 허위의식에 갇힌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기회복으로 나가는 인물 또한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친구 관계 형상화를 통해 인간의 미약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인식의 확장과 통찰을 회구한다. 본고는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친구 문제에 주목하여 박완서 소설의 인간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성장, 여성 등 그의 소설에 대한 주요 연구 주제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여성, 친구 관계, 문안의식, 비교우위, 자기 인식, 허위의식, 성찰

1. 서론

박완서는 1970년 작품 <나목>(裸木)으로 등단한 이래 일제 강점기, 6·25전쟁과 분단, 산업화 시대 등 급변의 한국 근현대사를 수많은 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재현해 왔다. 소설, 수필, 동화 등 여러 장르에 걸친 작품 활동은 변화하는 삶의 조건하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물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역사의 장에서 여성의 체험적 글쓰기가 지니는 독자성에 주목하고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 체험과 분단의 문제, 산업화 시대 이후 부각된 물질주의 및 중산층의 허위의식 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박완서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도기의 여성을 키워드로 하는 문제의식들을 제공하고 있어 여성주의 문학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박완서 작품의 여성인물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친구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 양상을 구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박완서는 우정을 주요 테마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진 않으나, 유년기를 비롯하여 청장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친구 형상화를 통해 인간 심리 및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친구는 가족 외에 인간이 마주하는 주요한 타인으로, 그의 작품 키워드인 여성, 체험, 성장, 정체성, 인간 욕망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친구 관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삶을 반추하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숙해 가는 추동력이 된다. 우정을 인간관계의 백미라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다. 인간 관계의 폭넓은 의미로서 우정을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애는 일종의 탁월성이거나 혹은 탁월성을 수반하는 것이며, 더욱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¹⁾라며 친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이란 에로스처럼 어떤 광기나 외부에서 들어

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길, 2015, 277면.

은 신적인 걱정이나 감정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간의 덕과 관련된 것으로 끊임없는 덕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가족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정을 통해 덕을 실천하며 완전한 사랑을 추구해 갈 때 훌륭한 삶을 뜻하는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다.”²⁾

공자는 친구는 ‘인’(仁)의 덕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을 유익한 즐거움의 하나라 하였으며, 친구 사귄데 신의(信義) 있는 것을 인간다움의 척도로 보았다.³⁾ 이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지속은 자기 수양의 과정이자 결국은 삶의 질과 행복을 고양하는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동서양 모두 우정이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공선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⁴⁾

박완서 작품에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모두 학창 시절의 동창들이 등장한다. 학교가 친구를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이긴 하나, 친구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이처럼 동창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은 인물 구성의 특징적인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남, 남녀, 여여 등 다양한 형태의 친구들 가운데 그가 여성문제에 천착하였던 만큼, 여자 친구들끼리의 이야기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

2) 장미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니코마코스 윤리학』 8, 9권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제28호, 2022, 65면.

3) 공자, 『논어』, 김석원 譯解, 해원출판사, 1995, 참조.

4) 우정에 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박재주,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 관념 통합 분석」,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22호, 2010.; 장동진·마상훈, 「인(仁)과 우애(friendship)의 정치철학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5권 1호, 2016.; 유지황, 「우정의 정치학 -토마스 아퀴나스와 자끄 데리다의 우정 이해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42집, 2016.; 강용수, 「니체의 우정의 정치학 -아곤(agon)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니체학회, 『니체연구』 제38집, 2020.; 손은실, 「그리스도교의 우정관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제48호, 2021.; 장미성, 앞의 논문.; 김민재(『논어(論語)』에 나타난 ‘우정관’ 연구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Laelius de amicitia)』를 연계하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3.

5) 본고에서는 동창 가운데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친구로 보았다. 남남 친구가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오만과 몽상>(1980)이 있으며, 남녀 친구는 <아주

여성에게 친구는 비즈니스 관계와는 달리 자매애와 같은 정서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한편, 때로는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친구 관계에서 빚어지는 이러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심리와 행동 양상을 추적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친구는 제도적으로 속박돼 있지는 않지만,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정서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인 책임감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말하자면 친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규범과 제도로서의 평가가 아닌, 한 사람의 자기애의 성격 및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하겠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친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친구 관계가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유년기의 작품 <엄마의 말뚝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⁶⁾와 중년 여성이 등장하는 <서 있는 여자>⁷⁾, <서울 사람들>, <우리들의 부자>, <나의 가장

오래된 농담>(1999)과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1989)에서 등장하고 있다. 공통적인 점은 친구 관계가 인간적인 교우, 신뢰와 같은 이상적인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창 친구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 계급모순이나 여성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 6)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성장소설, 근대 체험, 모성성을 모티브로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친구 관계가 성장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경희, 「<엄마의 말뚝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9권, 1996.; 송명화·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권 3호 제20집, 2003.; 강용운,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을 중심으로-」,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제25집, 2005.; 허병식, 「성장의 서사와 글쓰기의 소명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연작」, 한국불교사연구소, 『문학 사학 철학』 통권 8호, 2007.; 김미영, 「박완서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25집, 2008.; 조희경,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존계론적 모험'의 양상」,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제31집, 2010.; 이경, 「잠을 통해 근대 가부장제라는 말뚝에서 풀러나기 -<엄마의 말뚝> 1,2,3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 연구』 제31권 제2호, 2021.
- 7) 본고에서는 중년 여성인 경숙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기 인식을 추동, 강화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작품에 대해 여성주의 입장에서 분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정숙, 「<서 있는 여자>, 그 서성거림의 두 가지 방식」,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선청어문』 21, 1993.;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나중 지니인 것>⁸⁾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 형상화에서 나타난 여성의 자기 정체성과 인식 양상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⁹⁾ 이는 박완서 작품의 주요 탐구 대상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의 소설이 상당 부분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재현이라는 점에서 인물 설정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우정관, 나아가 인간관을 밝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1호, 2012;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6.; 신셋별,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통권 45호, 2018.;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통권45호, 2018.; 김문정, 「『서 있는 여자』에 나타난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여성적 글쓰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제60집, 2019.;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통권 45호, 2018.; 문화,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85호, 2022.

- 8) <서울 사람들>, <우리들의 부자>의 경우, 개별 논의된 바 없으며,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의 경우 다음 논의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신영미, 「카타르시스로서의 ‘이야기하기’-소망과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의 유사성과 차별성」, 한국언어학회, 『한국언어문학』 제65, 2008.; 김혜선, 「1980년대 민중화운동에서 재현되는 ‘투사/열사의 어머니」로서의 정치학과 아포리아 -김영현의 「엄마의 발톱」(1989),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을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제56집, 2024.
- 9) 중년 여성인물들의 특징은 중산층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속물주의, 허위의식, 존재 방식 등을 밝힌 바 있다. 본고는 이것이 친구 관계 속에서 자기 성찰로 나가는 양상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양선·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 『오늘의 문예비평』 3, 1991.;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17권 제1호, 2011.;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 2012.;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64호, 2013.

2. 유년 시절의 불안정한 친구 관계 형상화

유년은 자아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때의 유의미한 경험치들은 원형적 체험들로 기억화 되어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박완서가 여러 작품에서 유년 시절을 소급, 재구성하는 것 역시 이 당시의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현실과 관련 맺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유년 시절의 친구가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엄마의 말뚝1>(1980)이 있다. <엄마의 말뚝>은 1~3편으로 구성된 자전적 연작 소설로,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엄마가 작고할 때까지 50여 년의 가족사를 소설화한 것이다. 그중, 1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유년 시절 친구 관계가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본 작품의 내용을 반복, 재구성하고 있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에서는 유년을 비롯하여 여고 시절의 친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중년 여성이 서술 화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어릴 적 경험이 1인칭 회상체로 서술됨으로써 성장기 어린아이의 심리묘사가 사실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서사에서는 엄마가 남편을 잃은 후 시댁인 개풍군 박적골을 떠나 어린 남편인 오빠와 나를 데리고 억척스럽게 서울살이를 해나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엄마는 시부모의 만류에도 시골 반가(班家)의 중부 자리를 내치고 오빠를 출세시키고, 나를 신여성으로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서울행을 감행한다. 서사는 서울 문(門)안 사람으로 뿌리내리고자 하는 엄마의 고군분투와 함께 여덟 살의 나이에 낯선 서울로 오게 된 나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사 공간은 전통의 박적골과 근대의 서울로 나뉘고, 서울은 다시 가난과 무질서의 문밖과 부와 질서의 문안으로 이분화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삶의 공간들은 나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나는 모든 공간을 경험하지만 어디서나 이질적인 존재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데, 이는 엄마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오던 길에 마주한 송도에 대한 첫 인상에서 예견되고 있다.

기와지붕과 네모난 이층집 유리창에서 박살나는 한낮의 햇빛은 무수한 화살

처럼 적의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 이런 대처의 변화가 맹종하고 있는 질서가 나를 주눅 들게 했다.¹⁰⁾

아까 송도를 처음 보고 느낀 황홀감도 받은 실은 불안감이었다. 나는 농바위 고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미지의 세계에 던져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치고 싶었다.¹¹⁾

송도의 질서정연한 풍경은 황홀하지만, 뒷걸음치고 싶은 불안감을 동시에 심어준다. 송도에 대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감정, 농바위에서 박적골과 도시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는 경계인으로서의 나의 앞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의 나의 친구 사귀는 엄마의 문안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엄마의 성공 프로젝트는 서울에 말뚝박기하는 것으로서, 문안에 집을 사고 자식 교육을 잘하여 출세시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문안은 근대의 새로운 주류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러나 봉건질서를 표상하는 박적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서울로 온 결정적인 계기는 미신에 기대어 맹장염에 걸린 남편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세상을 떠난 일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문물에 무지한 박적골은 극복해야 할 세계였지만, 한편으로는 계급적인 양반의식 내지 자부심을 정신적 뿌리로 삼고 있음을 서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엄마의 문안의식은 전통과 근대 가치관이 이분법적 작용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서 가져온 자부심과 문명화된 근대의 가치관을 자의적,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는 처한 상황에 따라 우월감을 드러내는 임의적인 잣대로 작용한다. 박적골에서는 서울에 산다는 것으로, 서울 문밖에서는 스스로

10) 박완서, <엄마 말뚝1>,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21, 16, 30면.

11) 박완서, 『그 똥된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7, 45-46면.

12) 이가야는 전통과 근대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박완서 작품 속에 나타난 유년의 정체성과 장소』,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제53집, 2011.) 김영애도 대립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있으며, 엄마가 전통의 가치관을 극복하고자 하나 의식 심층에 구질서에 대한 갈망과 회귀 욕망이 내재돼 있다고 하였다. (『『엄마의 말뚝』의 서사구조 연구 -여성인물의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회, 『돈암어문학』 제29집, 2016.

떠나온 박적골을 자부심과 우월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바느질감으로 노는 것조차 못하게 하며, 자신과 다르게 신여성으로 살길 바란다. 엄마에게 딸의 신여성 되기는 자유로운 여성으로 살지 못했던 엄마의 결핍된 욕망과 자의식을 충족시키는 일이자, 주류 문명 세계로 진입하는 상징으로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원대한 꿈과 달리 서울에서 터를 잡은 곳은 문밖의 빈민촌인 현저동, 그중에서도 상상꼭대기에 있는 초가집 문간방 세간이다. 엄마는 기생 샴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현저동은 문안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 스스로를 위무하지만, 이는 자기 합리화의 정신승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엄마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난하고 무지한 현저동 사람들을 상종 못 할 바닥 상것들로 치부한다. 그리고 양반가의 근지 있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를 이곳 아이들과 차별화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나의 친구 사림은 원활하지 못하다.

“너는 근지 있는 집 자식이다. 본데없이 자란 이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봤댔자 못된 물만 든다. 나가 놀지 마라.”¹³⁾

안집에 들어가지 마라, 골목 앞에 나가지 마라, 안집 애하고 놀지 마라,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마라, 상종할 만한 집 자식 하나도 없더라.

엄마는 자나깨나 집요하리만큼 열심스럽게 나의 행동반경과 교우 범위를 제한할 줄만 알았지 그게 실제로 여덟 살짜리 계집애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¹⁴⁾

어느 날, 나는 뽕장이 딸과 친구가 된다. 친구와 무작정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놀이가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만족감은 엄마나 오빠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그러나 한번은 뽕장이 딸이 안집을 욕보이는 낙서를 하여, 나를 변호하던 오빠가 안집 아저씨에게 후레자식이라며 뽕을 맞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은 엄마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다. 겉으로는 굵신대지만, 속으로는 상

1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65면.

14) <엄마의 말뚝1>, 앞의 책, 47면.

것으로 멸시하던 안집 남자한테 신앙과도 같은 아들이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엄마에게 나를 뽐장이 딸과 놀지 못하게 하는 구실이 되었다.

낙서 사건은 또 당연하게 나를 그 뽐장이 딸과 놀지 못하게 하는 좋은 구실이 됐다. 엄마와 오빠는 내가 마음 붙이는 건 뭐든지 나로부터 떼려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음을 붙인 건 먹을 거나 물건이 아니었다. 그건 친구였다. 그 아이는 아주 옛되고 구슬픈 소리로 나와 놀자고 대문간에서 나를 불렀다. 그 소리만 들으면 나는 눈이 새앙쥐처럼 교활해지면서 엄마의 눈을 속일 기회를 잡으려고 온몸으로 조바심했다.

(…) 나는 내가 처음 사귀 그 아이한테 깊이 매혹당하고 있었다.¹⁵⁾

낙서 사건 이후에도 엄마는 한동안 친구들과 노는 것을 막지 못했으나, 결국 문밖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현저동의 괴불 마당 집을 사 이사를 간 데다가 엄마가 나를 문안에 있는 매동 국민학교에 입학시켰기 때문이다. “이사 가고 나서 나의 외톨이 신세는 좀 더 심해졌다. 뽐장이 딸하고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나 혼자 매동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의식적인 따돌림을 받았다. 엄마는 되레 그걸 바란 것처럼 좋아하는 눈치였다. 문밖에 살면서 일편단심 문안에 연연한 엄마는 내가 그 동네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문안 애가 되길 바랐다.”¹⁶⁾ 나는 현저동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는 처지에 놓이지만, 나 역시도 엄마의 세뇌로 은연중에 스스로를 이곳 아이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는 문밖 아이 아닌 문밖 아이가 된다.

그러면 문안의 아이가 되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엄마는 사직동에 사는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까지 나를 문안의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문밖에 산다는 소외감과 열등감, 위장 전입이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현저동 아이들과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낮섬 때문이다.

15) 위의 책, 57면.

16) 위의 책, 66-67면.

나는 체험과 의식의 괴리를 경험한다. 현저동 친구들과의 즐거움과는 무관하게 문밖은 멀리해야 할 부정확한 것으로 억압되며, 문안은 학교에서 겪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고고한 의식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엄마의 문안의식은 실제 삶의 질을 고려한 것은 아닌, 맹목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는 입학 시킬 때의 극성과 달리 정작 학교생활에 무관심한 엄마의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 속에 문안의 영악한 친구들 틈에서 나름의 살 방법을 고심하는 어수룩한 나의 고군분투가 그려진다. 특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4장 ‘동무 없는 아이’에서는 학교생활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불행과 심리적 고충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 친구들은 모두 그 근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 끼리끼리였다. 그 끼리끼리가 저희들끼리 싸우고 편먹고 할 뿐이었지, 처음부터 어떤 끼리끼리에도 안 속한 이질적인 아이에 대해선 배타적이고 냉혹했다. <…> 우월감과 열등감은 다같이 이질감이라는 것으로 서로 한통속이었다.¹⁷⁾

신을 괜히 벗어던지고 나보고 주워 오라고 명령하면 별 수 없이 주워 왔다. 그 애는 그걸 즐겼고 아이들 사이에선 내가 그 애의 꼬봉이라고 소문이 났다. <…> 나는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고, 집에 와도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였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우리 동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만 몰려다녔다. 산까지 넘어 문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중뿔난 시골뜨기를 이단시켰다.¹⁸⁾

나는 주소를 속인 걸 아는 것 같은 친구 앞에서 기를 못 펴고, 둘 사이에 어느덧 주종관계가 형성돼 버린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단아로 인식된다. 엄마에게 문밖은 마음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세계이며, 동경해 마지않는 문안의 삶은 끼리끼리 힘을 형성하고 있어 끼어들기 힘든 요원한 세계이다. 문밖과 문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엄마의 삶, 현저동 사람에게 가지는 우월감과 문안 사람에게 가지는 열등감,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순된 심리가 나의 친구 사립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엄마와 다른 점이라면 의식이 아니라, 나는 몸으로 이를 체험하고 있다

17) 위의 책, 67면.

18)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앞의 책, 84면.

는 사실이다. 실체 없는 문안의식은 현실에서는 무력하다. 따라서 나는 맹목적으로 문안을 지향하는 엄마와 달리, 문안의 집단성이 가진 배타성을 경험하며 동경과 거부의 양가적인 감정으로 문안을 인식한다.

서울 안팎뿐 아니라 고향 박적골에서도 나는 이질적인 존재이다. 서울에서는 시골의 근지 있는 집안 출신의 자식이라는 것이, 시골에서는 서울에 산다는 것이 우월감의 근거가 된다. 엄마는 여름방학 때 원피스를 만들어 입히는가 하면, 겨울에는 친척에게 빌린 토끼털 목도리를 두르고 스케이트를 매고 가게 한다. 서울 이미지를 날조함으로써 서울행을 정당화하고,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어느덧 그런 엄마에게 동조하며 서울 아이 티를 낸다.

같이 놀던 동무들을 만나도 그전 같지가 않았다. 엄마가 애써 만들어 붙인 서울 티도 동무들과의 사이를 서먹하게 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서울 생활 반년 만에 벌써 내가 시골 아이들과 격이 다른 것처럼 느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 했으니 그 애들 보기에 얼마나 눈꼴이 시었을까.¹⁹⁾

엄마에게 박적골이 문안 의식의 뿌리이자 또 한편 극복해야 할 세계 이듯, 나 또한 박적골은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살았던 낙원이었지만 더 이상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은 아니다. 나는 시골 아이들과 격이 다른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 이처럼 나는 친구들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인식에 의해 완전한 시골 아이도 도시 아이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년의 친구 관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문밖, 문안, 박적골 친구들이 저마다 자신들만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동안, 나는 이 세 공간 모두에 걸쳐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부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 속에서 나는 점차 자신만의 교우 관계와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된다.

순탄하지 못한 교우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공백은 엄마가 해주는 옛날이야기에서 채워진다. 나는 점차 혼자 다니는 것을 즐기게 되는데, 이는 이야기에서 촉발된 공상하는 재미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엄마의

19) 위의 책, 105면.

이야기가 불안정한 감정을 정화하는 문학치료 역할을 한 셈이다. 이처럼 엄마의 이야기가 주는 치유 효과, 인왕산을 넘는 등하곶길에 자연과 교감하며 만들어간 아름다운 심상들 덕분에 고립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 극복하며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와 상상의 힘은 친구와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나는 5학년에 이르러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된다. 전학온 복순이와 짝이 된 계기로 친해진 이후 공일마다 도서관을 찾아가 책을 읽고, 읽은 책 얘기를 주고받는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던 것이 복순이와의 관계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던 것이다. 복순이는 유년 시절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친구로, 도서관에서 함께한 경험이 지적 성장을 이루는 데 신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숙명고녀에, 복순이는 경기고녀에 지원하면서 이 우정도 끝이 난다. 복순이에 대한 나의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후, 여고 시절에 이르러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친은 등장하지 않으며 두루두루 즐겁게 지낸 것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다른 친구들이 단짝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 나는 오히려 혼자가 편하며 그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또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상급학교에 가니까 등하곶길을 꼭 짝지어 다니는 짝꿍들이 정해져 있어서 한 쪽이 청소를 하거나 해서 늦는 경우는 기다렸다가 같이 가주는 등 혼자 다니는 걸 불행하게 여기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는 그 반대로 동행이 생길 기회도 일부러 피했다. 그렇다고 어디서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고, 다만 나다닐 때 혼자인 게 편할 뿐 아니라 그걸 즐기는 편이고, 그동안을 방심, 한눈 팔기, 공상, 구상, 관찰 등 내 나름으로 무척 달콤하게 써먹고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때 길들여진 버릇이 아닌가 생각한다.²⁰⁾

어린 시절 친구 관계에서 겪던 정서적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도 구속되지도 않는 자신만의 세계와 관계 방식을

20) 위의 책, 157면.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엄마와 친구 복순이와의 경험에서 온 이야기와 상상력의 힘, 그리고 서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린 시절 인왕산을 넘어 문안의 학교를 혼자 오가는 동안 키워진 생각과 자유로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살펴본 바처럼 유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는 문밖의 가난한 현저동 친구들과 문안의 세련된 친구들이 대비되면서 이 두 낮은 세계에서 겪는 어린아이의 내적 갈등과 심리가 묘사되고 있다. 또한 고향 박적골도 어정쩡한 서울 아이가 된 나에게 어느새 향수의 공간이 되어 있다. 나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서울에서나 박적골에서나 친밀감과 지속성이 있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작품은 경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어느 곳도 절대적인 부정도 긍정의 공간도 아니며, 자의든 타의든 완전히 소속되기 힘든 거리감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박적골이라는 씨족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와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인 삶의 공간을 살아가며 겪는 정체성 혼란, 그리고 점차 적당한 거리감으로 관계법을 구축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본 작품은 중년 여성이 서술 화자라는 점, 그리고 중년에 이르러 쓴 박완서의 자서전적 소설이라는 점에서 유년의 기록을 통해, 문안의 중산층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작가 자신의 타인에 대한 인식 및 자기 정체성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중년 여성의 친구와의 비교우위를 통한 자기 확인

친구 관계가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은 유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20대 미혼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 전체 서사의 중심 갈등으로 부각되지는 않으나 단적인 여고 동창의 남자친구를 빼앗는 등, 질투와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사랑과 우정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¹⁾ 친구 관계가 서사의

21) <목마른 계절>의 주인공 진이는 여고 동창 향이의 약혼자인 준식과 사랑에 빠진다.(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5.) <휘청거리는 오후>의 말회는 자신

중심이 되는 것은 중년 여성을 모델로 한 작품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특징적인 것은 친구와의 비교우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확인, 성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서 소설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봉건과 산업화가 혼재된 과도기 시대, 고등교육을 받은 후 주부로 살아가는 도시 중산층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탐색이다. 작품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의 가부장적 질서가 견고히 유지되는 가정생활에서 겪는 갈등, 물질에 대한 욕망과 속물성 등 여성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의식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친구 관계 형상화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설 <서 있는 여자>(1985. 1982년, 《주부생활》에 <떠도는 결혼>으로 연재.)는 불평등한 결혼생활에 대한 경숙과 딸 연지의 대비되는 대응 방식을 통해 여성의 자아의식과 현실인식을 탐구한 작품이다. 경숙은 대학교수인 남편과 아들, 딸을 둔 평범한 주부이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숙은 남편 하석태로부터 소외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은 딸 연지의 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는 그 늘어진 팔자라는 게 싫어. 그 안락한 함정에 빠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는 아마 모를걸. 난 알아, 난 그럴 수가 없어.”

연지가 다시 지리멸렬해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아름답고 팔자 좋은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팔자를 부러워했다. 그럴수록 그 여자는 자신의 외면상의 행복을 감추처럼 굳히고 함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들었다. 그러나 연지는 알고 있었다. 적나라한 그 여자가 얼마나 참담한가.²²⁾

연지가 ‘안락한 함정, 감추처럼 굳힌 외면상의 행복’이라 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숙은 자기실현에의 욕망 대신, 헤어 나올 수 없는 안

의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고 동창인 미선의 남자친구 정훈을 가로챈다. 그럼에도 말회는 미선과의 우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데, 이는 미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후 미선이 행복한 결혼을 하자 미선에게 배심감까지 느끼고, 정훈과도 헤어진다.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2012.

22)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22, 79면.

락과 남들에게 보이는 행복에 갇혀 살아간다. 경숙 부부는 연지를 결혼 시킨 후 이혼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숙이 이혼을 제안한 것은 삶의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에게 소박당한 것에 대한 오래된 상처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란 것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막연하고 낭만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는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위한 노력이 드러나지 않은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연지의 약혼식 날, 남편이 막상 이혼을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두려움을 느낀다.

어느 날, 경숙은 이혼한 여고 동창 가운데 잘살고 있다고 소문난 친구들을 방문해 보기로 한다. 이혼 준비 차원에서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오히려 그동안 굴욕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실상이 예상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찾아간 친구는 대구에서 의사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박순님이다. 화려한 이혼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직접 본 순님의 삶은 고독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경숙은 ‘늙도 젊도 않은’²³⁾ 여인이 혼자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가 생각한다. 두 번째로 대전 시내 빌딩 두 채를 위자료로 받은 곽은선을 찾아가지만, 남자친구에게 목매는 은선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낄 뿐이었다. 결국 경숙은 집 나온 것을 후회하며 그동안의 품위라는 것조차 하석태 부인이라는 후광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경숙은 만약 자기가 하석태 교수 부인의 자격을 포기하고 김경숙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 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해보았다. 서울역 광장에 오도카니 선 가출 소녀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냉혹한 경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자신 때문에 하석태 교수 부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생각하려 들지 않았던 자신의 경솔이 한심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을 거야. 나올 때도 그인 무관심한 척했지만 들어갈 때도 그인 무관심한 척해줄 테니까. 가끔 죽고 싶도록, 때로는 죽이고 싶도록 건디

23) 위의 책, 233면.

기 어려웠던 하석태 씨의 무관심이 별안간 그리운 미덕으로 회상됐다. <…>

품위 있는 하석태 교수 부인으로서 바라본 은선의 욕실은 고급 창녀의 욕실처럼 천박해 보였다. 그녀는 그 요란한 치장이 께적지근해서 대강대강 샤워만 하고 나왔다.²⁴⁾

경숙은 자신이 하석태 부인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에 아연하지만, 곧 결혼생활을 한없이 긍정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한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대구-대전-서울로의 공간적 이동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해 나가는 여정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데는 두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이 우월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그 비교 기준은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경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여자는 비참했다. 경숙은 자신 속엔 아직 비경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게 느닷없이 짜릿한 자기애가 되고 있었다. <…> 수치심의 퇴화엔 같은 여성으로서 모욕감마저 느꼈다. <…>

은선이 앞에선 별로 개가 쏘아질 것도 없지만 미운 정 고운 정이 곱삭아 푸근히 늘어가는 평범한 부부로 보이고 싶었다. 지금의 은선에게 평범한 팔자가 얼마나 눈부서 보이리라는 걸 경숙은 겨냥하고 있었다. 팔자 사나운 친구를 썸나게 해주고 싶다는 게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를 정성껏 병구완해 준 친구에 대한 보답이었고, 그녀의 작은 허영심이었다. 아마 그녀가 여자인 한 그 정도의 허영심마저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²⁵⁾

경숙은 비경이 남아 있지 않은 순님의 민낯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퇴화된 것 같은 친구의 모습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 이러한 감정은 상대적으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것으로, 남편에게 소박당했던 모욕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순님의 허술한 살림살이, 은선 집의 청결과 이것의 무너짐, 은선의 “블라우스 따로 치마 따로 에이프런 따로, 각기 다른 사람이 주워다 입힌

24) 위의 책, 335-336, 338면.

25) 위의 책, 232, 239, 361면.

것처럼 통일성을 결여”²⁶⁾하고 있는 옷차림 등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결벽과도 같은 이 감정은 안정된 삶에서 이탈할 것 같은 불안에 기인한다. 주부라는 익숙한 삶의 테두리에서 바라본 낮췌, 정숙한 조강지처로의 삶이 오염될 것 같은 두려움인 것이다.

불안은 점차 겉으로 보기에 나무랄 데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온 데 대한 자부심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친구들의 삶을 경계지음으로써 자신을 확인하고,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려 한다. 부부 갈등의 원인이었던 남편의 무관심조차 관대함의 미덕으로 평가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수모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진다. 경숙은 제3의 삶의 방식을 모색하지 않는다. 하석태 부인으로서의 삶이나 친구들과 같은 삶이나 라는 선택지 앞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그녀의 결정은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완전한 긍정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차선으로서의 암묵적인 자기 타협과 친구를 통한 상대적 우월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숙은 하석태 부인으로서의 공고해진 자기 발견과 결단이 주는 뿌듯함에 겨워 평범한 여염집 아낙네라는 팔자를 은선에게 자랑하며 썩나게 해주고 싶어지기까지 한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 영혼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다. 이 비교는 아마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²⁷⁾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질투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자기 인식은 자존감의 결핍에서 오는 유아적인 자기 확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이란 비교우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존감 부족은 곧 자기애의 결핍으로서 서로를 성찰로 이끄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즉 경숙의 모습은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발견하며, 자기 회복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양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목 ‘서 있는 여자’는 경숙의 경우, 한 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자기 인식, 세계관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상 경숙이 보이는 삶의 태도는 <엄마의 말뚝>에서 나타난 문안의식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엄마가 문밖을 타자화함으로써 문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꿈꾸듯이, 경숙 역시 결혼제도 밖의 삶을 불안정한

26) 위의 책, 330면.

27)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1. 396면.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정상이라는 삶의 궤도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확보해 간다. 말하자면 문안의식은 산업화 시대, 적절한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 주부로서 평범한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모,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엄마가 문안에 입성하는 것에 열성을 보였지만 그 안에서의 나의 실제적인 삶에는 무관심하듯, 경숙 역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보다 가부장제 질서에 자신이 위치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서사에서는 친구 간에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를 봉합하려는 시도 가운데 우정이 깊어지는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악한도 선인도 아닌, 그만그만한 학력과 인격, 친구 관계, 살림살이를 갖추고 사는 여성의 현실적인 삶과 선택들을 풀어내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숙과 친구들은 혼인 제도에 묶여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으나 자기 긍정이 부족하며 가부장제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순님은 경숙의 고민을 철없고, 세상물정 모르는 여인의 투정 정도로 치부하며, 경숙을 통해 자기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녀는 남편 사랑하는 지인, 자식 잘 둔 친구를 보며 아이를 못 낳아본 채 이혼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열등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순님의 전문적인 직업도 은선의 경제력도 가부장제 질서를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있다.²⁸⁾

이들이 확장된 세계로서의 우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부장제 틀에 갇혀 주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자기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삶 역시 긍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친애적 태도나 감정들’, 또 여러 종류의 친애들을 규정하는 기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친애적 태도나 감정들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²⁹⁾ 라며, 자기애가 우정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

28) 경숙과 친구들의 이러한 태도는 서사의 또 다른 축인 경숙의 딸 언지에게서 한 단계 극복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사 초반에 “제 뜻은, 제 꿈은 독자적으로 사는 거예요.”(〈서 있는 여자〉, 앞의 책, 28면.) 라고 한 말처럼 언지는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는 주로 경숙과 언지를 대조하고 있으나, 추후 이혼이라는 조건 속에서 보이는 경숙의 친구와 언지의 상이한 태도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 자기애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다. “자기애는 금전, 명예,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닌, 정의, 절제, 탁월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좋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니, 이는 그가 고귀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³⁰⁾ 말하자면 ‘네 이웃처럼 네 몸을 사랑하라’가 아닌,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숙된 도덕적 자아로서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친구에게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자기에게 하듯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사람들>(1984)은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결혼 시장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속물성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내용 가운데 1장, ‘울썩이 적 생각을 왜 해’는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해 가던 7, 80년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친구 사이인 두 인물을 통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친구 간 질투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다.

혜진과 명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형편에서 살며 친하게 지낸다. 그러나 혜진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다달이 동창 께날 만날 때마다 눈에 띄게 씩씩이와 옷차림이 달라지는 혜진을 보면서 우정은 어느 틈에 시샘하고 탐색하는 마음으로 변해갔다. <...>

명희는 혜진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만 해도 그 뻘한 월급에서 다달이 관리비 떼어내고 나면 속이 어려서라도 얼마 못 살걸 하는 마음으로 질투심을 달랬었다. 그러나 두고 볼수록 예상과는 정반대인 걸 보고 조바심이 안 날 수가 없었다.³¹⁾

친구는 “서로에 대해 선의를 갖고 있으며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그러한 사실을 서로 모르지 않아야 한다.”³²⁾ 그러나 작품은

29)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323면.

30) 위의 책, 334-335, 336면.

31) <서울 사람들>,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4, 205면.

32)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281면.

이러한 친구 관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도달하기 힘든 수양의 경지임을 확인시켜 준다. 혜진이 아파트로 이사 간 후에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자 명희의 우정은 질투로 바뀌고 궁금증에 조바심까지 나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혜진으로부터 돈을 꾸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명희는 혜진이 분수 없이 소비를 하다 빚을 진 것이라 생각하며 고소해한다.

두 사람은 서로가 살림살이를 가늠하며 물질적인 비교우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명희가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우정 때문이라기보다 이자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간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복수심이 포함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혜진 역시 부의 격차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명희에게서 우월감을 느낀다. 그녀는 가난 해서가 아니라 아파트로 돈을 벌게 되자 부동산 투기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 돈을 빌리려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정이라기보다는 이자 돈이 탐나서였고, 이자 돈보다도 더 탐나는 건 돈을 꾸어주면서 맛볼 우월감이었다. 이사가고 나서 달라진 혜진으로 하여 느낀 열등감이 얼마나 고약했던지 명희가 기대하는 우월감엔 복수심마저 포함돼 있었다.
<…>

확실하게 드러난 신분의 격차 같은 게 혜진의 우월감을 자신있게 했고, 자신 있는 우월감은 힘 안 들이고 혜진을 우아하게 만들었다. <…>

“뉘, 6천? 너 그거 작년 이맘때 3천 주고 산 거 아냐? 지지리도 안 팔리는 아파트라 분양가만 주고 층수도 마음대로 골라서 산다더니 그게 그렇게 올랐어? 말도 안 돼. 그건 정말 말로 안 돼.³³⁾

물질의 격차는 곧 신분의 격차가 된다. 돈을 번 데서 오는 자신감은 혜진을 우아하게 만든다. 명희는 혜진이 이사 가기 전에 궁상떨던 모습을 상기시켜 주면서 애써 그녀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혜진의 아파트가 1년 만에 배로 오른 것을 알고는 주눅이 들면서 억울한 심정을 느낀다. 이처럼 둘은 물질적인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며 신경전을 벌인다. 이들의 우정이란 서로가 질투하지 않을 만큼 비슷한 형편일 때 유지되는 것으로, 인간적인 삶의 교류와 공감의 깊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처럼

33) <서울 사람들>, 앞의 책, 206, 208, 210면.

작품은 친구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 부의 격차에서 오는 질투심, 그리고 물질적인 경쟁사회가 부추기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품격의 허상을 부각하고 있다.

두 작품은 친구 관계 형상화를 통해 우정의 실체와 등장인물들의 의식을 그려내고 있다. 인물들은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를 성찰하기보다 가부장제 질서와 물질적인 잣대로 가까운 타인인 친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우월감과 안정감을 확인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열등감과 질투의 감정에 휩싸인다. 작품은 개인화된 도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과 서로를 비교 삼아 물질적 가치를 받 빠르게 쫓아가는 실속과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친구 관계 형상화는 여성의 심리뿐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70, 80년대 중년 여성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중산층 여성들이다. 이들은 일제 치하에서 유년을 보내고, 청년 시절에 전쟁을 경험한 후,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한 여성들이다. 어머니 세대와 다른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식 교육을 받은 새로운 계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축적돼 온 봉건적인 여성상, 어머니 세대가 걸어온 삶은 이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서구의 중산층처럼 이상적 역할 모델을 학습한다거나 종래의 혈통 귀족에 대항하거나 하는 방식의 확고한 자기 정체성 구축의 기회가 없었던 한국의 특수성”³⁴⁾이 있다.

따라서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독자적 삶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적 토대와 의식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진 친구의 삶이 새로운 삶의 양태를 창출하는 하나의 참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본 작품은 삶의 모델로서의 여성상이 부재한 과도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모델로 삼을 만한 이상적인 친구가 등장하는 예는 없다. 이처럼 작품은 가부장제 질서 속의 가족주의, 세속적인 사회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의식 있는 인물을 앞세워 휴머니즘적 여성으로 비약

34) 오자은, 앞의 논문(2013), 493면.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산층 삶에 대한 집착, 세속적인 가치 추구 등이 친구 관계에서 연유,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현실 비판적인 자각을 이끌어내고 있다.

4. 허위의식 비판과 자기 성찰의 양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완서 소설에서 친구 관계는 인격적인 결함이 라 할 수는 없는, 적당한 우정과 질투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인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남의 인생에 불필요하게 관여하지도 관여 받지도 않으며, 자기 삶을 영리하게 갈무리하며 그렇게 잘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타인의 삶과 경계 지움으로써 획득하는 안정감, 적당한 거리감으로 자기 세계를 유지하는 관계 방식은 유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자>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이와 차별화되는 작품으로, 친구 관계를 통해 이기적인 자기애와 가족애, 허위의식에 갇힌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의 부자>(1979)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다른 여고 동창 세 명이 등장하고 있다. 평범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주인공 오숙경, 궁핍하게 살아가는 김순복, 재벌가의 사모님인 윤혜림이 그들이다. 숙경은 한복 샅바느질을 맡기러 갔다가 우연히 순복이를 만난다. 서사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를 20여 년 만에 만나는 숙경의 심리가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영락한 친구를 모른 척하는 해주는 것을 인심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 아부하는 것처럼 비굴하게 구는 친구가 내심 싫지 않은 것, 형편이 다른 처지에서 만난 어색함, 은근히 드는 우월감, 그리고 불편한 감정 등이 뒤섞여 있다.

순복은 남편과 사별한 후, 샅바느질을 하면서 장애를 가진 딸 혜나를 비롯해 삼 남매를 키우고 있다. 숙경은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순복을 소개해 주는 등, 그녀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마음 한 켠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순복이 자신과 대등하게 구는 태도를 보일 때 생소함과 불쾌감 같은 것을 느끼

기도 한다.

그러나, 숙경이 우월감은 성격적 결함으로 볼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녀가 순복을 돕는 이유는 혜나에게 마음에 쓰였기 때문이다. 숙경은 특수아동교육학과를 나온 후,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으나 엉뚱하게도 혜나를 보고서 순복의 과보호 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진다. “실상 나는 내 휴머니즘을 가장 믿지 못했다. 나의 사람됨을 영구하고 있는 잡다한 것들 중에서도 그거야말로 개떡 같은 거였다.”³⁵⁾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는 어설픈 휴머니즘에 빠져 하는 행동은 아닌 것이다. 그녀는 순복에게 혜나를 무조건 끼고 돌며 편애하는 것은 병적인 집착에 불과하다는 것, 혜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등, 순복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준다.

숙경의 설득 끝에 순복은 혜나를 특수교육기관인 희망원으로 보내게 되지만, 이후에도 딸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근거 없이 희망원을 불신하며 극성을 부린다. 숙경은 순복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태도에 연민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러다 순복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것은 우연히 동창 혜림을 만나면서이다.

이때였다. 방안 가득 은은한 향기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우아한 귀부인이 우리에게 알은 체를 했다. <…> 혜림의 우는 모습은 조용하고 고상했다. 이윽고 눈물을 닦고 난 혜림은 순복이한테로 다가가 그녀의 깡마른 어깨를 안았다.

“네 마음 내가 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

“나도 병신 자식 뒤했단다. 우리 애도 뇌성소아마비였어. 천사 같았지. 몇 년 전에 잃고 말았지만.” <…>

“돈이 있다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구 아들 뒤했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모성애를 박애 정신으로 승화시킨 윤 여사님의 거룩한 마음씨에 우린 그저 감격하고 있을 따름이죠.”³⁶⁾

혜림은 재벌 집으로 시집을 간 친구로, 희망원에 적지 않은 돈을 기

35) <우리들의 부자>, 『엄마의 말뚝』, 앞의 책, 519면.

36) 위의 책, 543, 545-546면.

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 역시 장애가 있던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음을 말하며, 순복을 위로한다. 이 만남 이후 세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숙경과 순복은 가진 자들에 대한 편견과 달리, 헤림이 소탈하고 우아, 고상하며 잘난 척하지 않은 면들에 감탄하며 그녀의 인품에 빠져든다. 때때로 헤림이 호사스러운 장소에 데려가는 덕분에 신세를 지더라도 자신들이 비굴감 없이 동등하게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녀의 인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순복은 장애아를 뒀다는 동료 의식에 취해 헤림과의 경제적 격차를 잊은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헤림의 말과 행동은 보통의 사람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고양된 인격, 그 자체인 것이다.

“희망원은 내 종교야.”

헤림이 승용차의 안락한 시트에 깊숙이 파묻히며 정말 종교적인 얼굴로 말했다.³⁷⁾

헤림은 희망원을 종교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헤림이 매달 희망원에 내는 거액의 기부금은 혼자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조성한 것이었으며, 재벌답지 않은 소박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미신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숙경과 순복은 헤림의 약점이라 생각하기보다 완벽하지 않음의 미덕이라 여길 정도로 그녀를 신뢰한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 사람의 우정은 얼마 못 가 무너진다. 순복은 헤림의 제안으로 고급 쇼핑센터에 그럴듯한 한복집을 차리게 된다. 헤림과 숙경이 부족한 돈을 짠 이자로 빌려준 덕분이다. 그러나 한복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가게들에 밀려 망하고 만다. 이렇게 되자 숙경은 빚 독촉을 하다가 더 이상 개입하면 오히려 돈을 더 보태줘야 할 상황 같아 순복에게서 손을 떼다. 또한 자기만이라도 빚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헤림과의 연락도 피한다. 몇 푼이라도 돈을 받아내면 반분해야 된다는 계산에서였다.

이들의 우정이란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은 선에서 원만하고 돈독

37) 위의 책, 555면.

했던 것으로, 채무라는 갈등 상황에 놓이자 곧바로 깨지고 마는 것이다. 순복에 대한 숙경과 혜림의 마음은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수할 만큼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상황이 펼쳐진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돈 받기를 단념했던 숙경은 뒤늦게 혜림은 이미 돈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충격을 받은 숙경은 순복을 찾아가고, 거기서 무일푼이 된 채 길거리로 쫓겨나 있는 순복을 마주하고 만다.

“남의 돈 떼어먹고 이대로 줄행랑을 쳐도 되는 거야?” <…>

“제발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마. 제발. 내 다 얘기할게. 사실은 나중에 조금씩 갚아줄 작정하고 개 돈이고 네 돈이고 다 떼어먹을 작정이었어. <…>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혜림이한테서 편지가 온 거야. <…> 꿇준 5백만 원을 갚아달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청천벽력이다. 내가 개한테 쏜 돈은 분명히 2백만 원인데 편지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5백만 원인거야. <…> 얼마 후 혜림이의 대리인이라는 신사가 찾아와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물론 5백만 원이 아니라 2백만 원에 대해서지. 5백만 원은 2백만 원이라는 내 회답을 얻어내기 위한 트릭이었어. 내 회답이 차용증서의 구실을 해서 소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

“난 지금 아주 편안해. 신기하도록 편안해.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이렇게 한푼도 없어보기도 처음이야. 이렇게 편해보기도 처음이야. 혜림인 아마 모를 거야.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정결한 경지가 있다는 걸. 이 기분을 모르는 인간에겐 이 기분을 베풀어주고 싶을 만큼 이 기분은 좋아. 혼자서 간직하기엔 아까운, 마치 신선 같은 기분이야. 혜림이 같은 애에겐 이 기분을 세례라도 주고 싶어.”

“너 미쳤구나, 가엾은 것. 정신 차려야지, 아이들하고 장차 어쩔 셈이니?”

“참, 나 아주 무일푼이 아냐. 요전에 혜나가 외출 나왔다가 2만 원 주고 갔어. 개가 글썽 돈을 벌여 날 주게 됐지 뭐니. 우리 혜나가 코바늘뜨기를 특이하게 잘 해서 직영매장에서 인기가 대단하대.”³⁸⁾

순복의 말을 통해 돈 앞에서 서로 각각의 계산에 바빴음을 알 수 있다. 순복은 차용증서가 없다는 것을 믿고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고, 숙

38) 위의 책, 565-567, 568면.

경은 본인만 돈을 받기 위해 헤림과의 연락을 끊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자기 것을 챙겨간 사람은 바로 헤림이었다. 그녀는 일말의 인간미마저 거둬들인다. 그간 보여주었던 종교적인 태도들, 미덕, 인품이란 것도 순간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취약한 것임이 드러난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에 침범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조금의 희생도 용납하지 않는, 딱 그만큼의 우정인 것이다.

영리하게 자신의 돈을 찾아간 헤림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으며, 그녀가 순복을 책임져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러나 혈연이나 제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덕목으로서 우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케로는 “불행에 빠진 사람의 친구로 남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성가셔 보일 것이네.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의 불행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네.”³⁹⁾ 라며 인간의 미약한 면을 지적하였다. 작가 역시 헤림이 보여주는 허위의 도덕성을 통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은 이상, 인간이 선블리 우정을 말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타인에 대한 선의가 자기 도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무일푼이 된 순복은 참담함이 아니라 어떤 정결한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녀의 깨달음이란 선함과 우아한 이미지에 감추어진 냉정함, 이를 목격한 후의 마음의 상실과 공허, 그러면서도 이러한 인간 세속을 인정함으로써 원망을 넘어서게 되는 해방감과 자기정화의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는 마지막에 숙경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운을 남긴다. 그녀는 오갈 데 없이 길바닥에 내버려진 순복으로부터 도망치듯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간다. 자기 집 빈방 하나를 내어줄 생각에서다.

나는 그들을 빨리 안 보는 게 수다 싶어 도망치듯이 물러나 큰길로 나왔다. 큰길 건널목에서 몇 번이나 파랑불을 놓치고 그냥 서 있었다. 용달차가 빈 차 표시를 올리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번쩍 들어 용달차를 세우고 올라탔다. 그리고 방금 떠난 아파트 이름을 뱉다.

39)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천병희 옮김, 숲, 2007, 150면.

우리 집엔 남아도는 빈방이 하나 있었다.⁴⁰⁾

본 작품은 각기 다른 형편에 있는 여고 동창생 형상화를 통해 배꼽과 우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구 혜림은 처음부터 의심 없는 휴머니스트이자 이상적인 친구로 등장한다. 그러나 순복과 채무 관계 전후에 보이는 상이한 태도에서 우정의 실체에 회의하게 된다. 바닥으로 떨어진 약자에 대한 몰이해, 조금이라도 불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태도를 전환하여 빗장을 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혜림의 태도를 미루어볼 때 그녀의 인품에서 빚어진 자연스러운 태도라 믿었던 소박함과 친근감의 정체라는 것은 스스로를 여타의 부르주아들과 차별화하는,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는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희망원은 내 종교야.”라던 혜림의 말에서 예견되고 있던 것이었다.

반면, 숙경은 순복에 대해 우월감, 연민, 부담 등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이라 볼 수는 없다.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보이는 행동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주부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대단한 차원의 고상한 인격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 친구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아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순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혜나가 장애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도움을 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집 한 칸을 내주려 한 것 등에서 혜림과 차별화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숙경의 도움이 순복이 직면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순간에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보다 인간적인 선택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혜나가 스스로 돈까지 벌게 되었다는 순복의 말에서도 그간 숙경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작품은 사랑의 한 형태인 우정에서 자기희생의 감내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혜림이 순복을 돕겠다는 동기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무엇도 손해 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맘껏

40) <우리들의 부자>, 앞의 책, 569면.

베푸는 선의, 희생 없는 베품과 이해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사는 자기 성찰이 없는 우정이라면 휴머니즘을 가장한 일시적인 시혜, 허위의식의 발로일 수 있으며, 시간의 축적만큼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작품인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은 결혼생활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서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시련을 맞닥뜨린 여인의 절절한 통한과, 슬픔을 감추려 애써 스스로를 위장하며 억눌러 왔던 내면의 진실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작품은 작가가 아들을 잃은 고통과 종교적 고백을 담은 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1994. 《생활성서》, 1990~1991 연재.)를 소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인 ‘나’는 대학생이던 아들이 민주화 시위 도중에 죽은 후, 고통을 이겨내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 서사는 내가 손위 동서인 형님에게 넘두리하듯, 절규하듯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내가 창환일 잃고 나서 친척이고 친구고 멀쩡하게 아들 잘 기른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거, 나 알아요. 아들 자랑 하다가도 내 앞에선 입을 다물고, 장가보낼 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내가 행여 즈이들이 부러워 마음 상할까봐 그런다는 거 알아요. <…>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구 이렇게 손도를 맞습니까? 제가 손도를 맞는다는 건 창환이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치고 일어나 즉시 준비를 하고 환하게 웃으며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죠. 명애가 어쩔 줄을 몰라했지만 저는 늙름하게 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축하도 했구요. 개 아들하고 창환이하곤 뭘 것도 아니니까요. 꺾렁한 대학도 삼수까지 해서 들어갔고 젊은 애가 야망이 있나 이상이 있나 오로지 말초신경만 발달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여자가 맨날 바뀐다더니 아마 그중에 하나가 배라도 불러왔나 뽀뽀다. 부자도 아닌 집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린 걸 보면. 그런 녀석이 어떻게 창환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⁴¹⁾

41)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21, 380-381면.

친구들은 나의 고통을 헤아려 자식들 혼인 때 청첩장도 보내지 않는다. 친한 여고 동창 친구인 명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상처를 예측하여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아들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환한 모습으로 달려가 축하해 주면서 괜찮은 척 자신을 지키려 애쓴다. 그리고 친구 아들을 형편없는 아이로 깎아내리고, 이에 비해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열변하면서 나를 마음대로 연민한 친구들에게 거부감을 가진다. 이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거리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 불행이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의 고통을 감쇄시키는 비교의 수단이 된다는 데 대한 모욕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달라진 것 없이 움직이는 세상의 태연함과 야박함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곧 나의 이전 모습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동안 가꿔온 삶, 아들에 대한 나의 자부심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채 유지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일 뿐이다. 나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평범한 가정 안에서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해 간다는 데 대한 우월감과 다행한 마음, 자신의 아들보다 못한 아들을 가진 자에 대한 은근한 비하, 나를 지탱했던 이러한 가치들의 의미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창환이 잃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 줄 아세요.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

이렇게면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 나를 속이기가 싫어요. 무엇보다도 피곤하니까요. 가장 쓰잘데기없는 걸로 진 빼기 싫어요. 또 있구말구요. 그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⁴²⁾

이전에 남을 의식하며 남을 위해 나를 속이던 것을 이제는 하고 싶지

42) 위의 책, 387-388면.

않다고 한다. 열사 어머니다운 당당함을 연극하던 것,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과 그로 인한 피곤함, 이것의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내게 느닷없이 주어진 의식 있는 열사 어머니라는 수식, 이런 것이 좌절과 고통을 승화 시켜주지는 못한다. 아들이 백만학도가 추모하는 민주 투사로 명예롭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며, 아들의 잘난 면을 늘어놓는 것은 허망한 뉘두리에 불과하다. 나는 민주 투사 아들에 걸맞은 의식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어머니로 나날이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친구 명애는 내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황폐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동창 친구 집을 방문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누워지내는 아들을 돌보고 있다.

명애가 날 왜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지가 마침내 분명해지더군요. 즈네들 아들 경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부러워할 것 같아 쉬쉬 초대하기를 꺼리던 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그 집 모자의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자 한 거였어요. 죽는 것보다 못한 경우를 보고 위로받아라, 이거겠죠. 인간성 중 가장 천박한 급소죠. 그 급소만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아들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보호막을 친 거였는데, 딴 친구도 아닌 명애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⁴³⁾

명애가 친구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려 한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경우를 동정하며 심리적 보상과 위안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에 대한 열망은 자기만족에의 열망이다. 동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고통을 덜고 있는 것이다. 몇몇 철학자를 제외하면 사람들은 도덕적 감각의 서열에서 항상 동정의 자리를 상당히 낮게 매겼다.”⁴⁴⁾ 명애의 행위는 나의 불행을 비교 삼아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확인하는 것

43) 위의 책, 398-399면.

44) 니체, 앞의 책, 78, 115면.

만 같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더한 상처를 주는 일이다. 영문도 모른 채 방문을 받은 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애써 지키려 했던 위장된 평안함과 품위를 놓아버리고,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예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구요. <...>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 <...>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불쌍해할 것 없다고 화를 내더군요. 명애는 아니었어요. 명애는 제 속을 어느 만큼은 읽어낸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엔 우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날 말고 며칠이나 그랬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놓여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⁴⁵⁾

나는 친구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래서 모자간의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에 강한 부러움을 느낀다. 인물, 출세, 건강과 같은 어떠한 때문이 아닌, 있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전율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잘생긴 외모, 의식 있는 지성인, 좋은 학교, 직업, 집안, 친구와의 경쟁과 질투 속에 쟁취되는 은근한 정신적 승리감 등등이 모두 무화된다. 어떠한 세속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살아만 있는 아들, 겉으로는 힘든 간병에 악다구니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에게 아낌없는 자애를 베풀 수 있는 친구, 나는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모자에게서 숨길 수 없는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어떤 아들들도 우리 아들만 못하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비교우위를 통한 자기 확인의 계산법이 자식이라는 절대적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자에게, 그리고

45)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앞의 책, 400-401면.

한치도 알 수 없는 운명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통감한다. 이는 나의, 내 가족의 안위에 한정된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통회이기도 하다.⁴⁶⁾ 이 모든 명명한 사실 앞에 그동안의 수없는 위선과 가면에서 벗어나와 자신의 맨얼굴, 가장 나중 지니인 자신을 독대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쏟아내며 인간이 어찌지 못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나와 명애는 여타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친구 관계라 할 수 있다. 명애의 대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친구의 상처를 염려하며 보살피는 인물이다. 그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입장에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연민을 넘어, 스스로도 자기 통찰을 통해 나와 공감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녀의 의도와 달리, 자식의 생사를 두고 불행의 깊이를 비교하여 위로를 얻길 바라는 것은 자존심 강한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내가 그간의 위선과 허위의식에서 깨어나 비로소 회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회복의 걸음을 내딛듯, 명애 역시 자기의 위로 방법이 이기적이고 치졸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폭발된 나의 고통을 통감한다. 두 사람은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 없이 서로의 통곡을 읽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삶을 공유해온 학창 시절 친구로서, 자식 가진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공감인 것이다.

46) 이에 대한 성찰은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나는 남에게 벌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의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한 적조차 없었다. 물론 남을 해친 적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모르고 잘못된 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신에게도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별로 나누어도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세계사, 2015, 142면.

5. 결론

살펴본 것처럼 박완서는 친구 관계 형상화를 통해 등장인물이 삶의 시공간에서 겪는 정체성과 자기 인식의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전적 소설인 <엄마의 말뚝1>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는 유년의 주인공 ‘나’가 고향 박적골과 서울 안팎에서 겪는 불안정한 친구 관계가 형상화되고 있었다. 서울 문밖의 빈민가 현저동이라는 실존 공간과 엄마에게 영향받은 고고한 문안의식의 상충으로 나는 우월감과 열등감, 양극단의 심리를 경험한다. 이 때문에 결속력 있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어디서나 이질적인 존재로 소외를 느끼게 된다. 나는 친구를 통해 다정하기도 하지만, 영악, 쌀쌀하기도 한 인간을 배운다. 이러한 상황은 고학년에 이르면서 점차 자기 세계를 키우게 되는 성장의 모티브가 되고 있었다. 작품에 그려진 공간에 따른 상이한 친구 관계와 내적 갈등들은 결국, 전통과 근대, 서울 안팎 등 새로이 구획되는 근대의 복합적인 삶의 공간과 그 속에서 겪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장년 여성을 모델로 한 소설에서는 친구와의 비교우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서 있는 여자>의 경숙이 삶의 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이다. 그녀는 이혼한 친구들의 불안정한 삶을 보며 평범한 여염집 아낙네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을 발견함으로써 자기회복을 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양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기애의 부족에서 오는 배타적인 자기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사람들>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비교하는 두 친구의 신경전이 그려지고 있었다. 작품은 자각과 성찰로 이끄는 친구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비교우위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는 데 머무는 소극적인 자기 인식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었다. 사실상 유년과 중년이라는 배경적 차이는 있으나, 유년의 친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중년 여성인 엄마의 의식에 영향받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2, 3장의 친구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자아로 확장돼 가지 못하는 중년 여성의 세계관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작품들에서는 편협한 자기애와 가족애, 허위의식에 갇힌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들의 부자>에서는 우정에서 자기희생의 감내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작품은 사랑의 한 형태인 우정의 실현에 있어서 자기희생의 부재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으며, 도움 역시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거나 일시적인 시혜가 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 이르러 자식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 비교우위를 통한 자기 확인의 계산법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은 자기 한계를 성찰하며 위선에서 깨어나 자기회복을 해나간다. 친구 명애 역시 치유되지 않은 채 삶과 더불어 가야 하는 슬픔의 깊이를 공감하며 자기 성찰로 나아간다.

박완서는 우정을 이상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친구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우월과 열등감, 질투, 기만 등 인간 내면이 가진 모순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는 험사리 휴머니즘으로 비약하지 않으며, 제도와 관습, 그리고 세속적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폭로한다. 그럼으로써 마지막에는 이를 자기 삶에 대한 성찰로써 되돌리고, 공공선의 실현으로 나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처럼 그지없는 평범함이 가진 이기와 폭력성을 구체적인 삶의 실상을 토대로 집요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 이것이 박완서 작품이 가지는 특수성이라 하겠다.

차후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서 드러나는 엄마의 삶과 작가 삶에 대해 보다 정치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이 된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성장하였으며, 이것은 작가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주류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엄마의 말뚝 의식, 문안의식은 산업화 시대, 계급 상승의 상징으로서 중산층 되기를 욕망하는 세속적인 인물 유형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엄마의 한계는 곧 작가가 살아온 이후 시대의 한계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간 구축한 가치관과 삶의 질서들은 서사 상 각각 전쟁, 민주화 투쟁에 의해 자부심이던 아들을 잃는 순간 모두 무너진다. 이는 작가의 삶을 소설화한 문제를 넘어 불

완전한 인간의 공포와 불안이 만들어 내는 안위의 탐, 그러나 결국에는 시대와 운명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인간 비극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박완서 소설의 인간학을 이해하는 또 다른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shape of friend relationship between female characters in Park Wan-seo's novels

Kim, Hyunju(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women's identity and self-awareness revealed through friendships in Park Wan-seo's novels. In her childhood, the protagonist, who was influenced by her mother's moonan consciousness, struggles with feelings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and is unable to form cohesive friend relationship. The narrative depicts the process of forming an individual's identity in a complex space of traditional and modern life by visualizing different friendships and intern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space between her hometown, Bakjeokgol, and the inside and outside of Seoul.

In the case of middle-aged women, self-awareness through comparative advantage with friends was prominent. The narrative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the female image required in the patriarchal order or the economic standard as a criterion for comparison.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vulnerability of friendship that does not tolerate self-sacrifice and the character who critically reflects on a life trapped in false consciousness and moves toward self-recovery are also depicted.

The author realistically reveals the weakness of human beings through the depiction of friendship relationships, while seeking

to expand awareness and insight beyond one's own limit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the fact that it broadens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humans in Park Wan-seo's novels by focusing on the issue of friendship,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so far.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epening the main research topics of his novels, such as growth and women.

Key words : female, friend relationship, moonan consciousness, comparative advantage, self-awareness, false consciousness, reflect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박완서,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2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7.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세계사, 2022.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4.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21.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세계사, 2015.
박완서, 『오만과 몽상1, 2』, 세계사, 2012.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세계사, 2012.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1, 2』, 세계사, 2012.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5.

■ 단행본

- 공자, 『논어』, 김석원 譯解, 해원출판사, 1995.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 김미기 옮김, 책세상, 2001, 78, 115, 396면.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길, 2015, 277, 281, 323, 334-336면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천병희 옮김, 숲, 2007, 150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용수, 「니체의 우정의 정치학 -아곤(agon)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니체학회, 『니체 연구』 제38집, 2020, 7-36면.
강용운, 「한국전후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을 중심으로-」,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제25집, 2005, 69-93면.
김문정, 「『서 있는 여자』에 나타난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여성적 글쓰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제60집, 2019, 231-254면.
김미영, 「박완서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25집, 2008, 179-202면.
김민재, 「『논어(論語)』에 나타난 '우정관' 연구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Laelius de amicitia)』를 연계하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3, 185-213면.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

- 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권 1호, 2012, 215-234면.
- 김양선·오세은,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 『오늘의 문예비평』 3, 1991, 52-67면.
- 김영애, 「『엄마의 말뚝』의 서사구조 연구 -여성인물의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회, 『돈암어문학』 제29집, 2016, 225-244면.
- 김혜선,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재현되는 ‘투사/열사의 어머니’로서의 정치학과 아포리아 -김영현의 『엄마의 말뚝』(1989),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을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제56집, 2024, 395-417면.
-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플랫폼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통권 45호, 2018, 7-36면.
- 문화,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85호, 2022, 335-370면.
- 박재주,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 관념 통합 분석」,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22호, 2010, 177-194면.
-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통권45호, 2018, 73-117면.
- 손은실, 「그리스도교의 우정관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제48호, 2021, 131-165면.
- 송명희·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권 3호 제20집, 2003, 43-70면.
- 신셋별,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통권 45호, 2018, 37-71면.
- 신영미, 「카타르시스로서의 ‘이야기하기’ -소망과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의 유사성과 차별성」, 한국언어학회, 『한국언어문학』 제65집, 2008, 395-417면.
-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제50호, 2012, 231-256면.
-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학회, 『국어국문학』 제164호, 2013, 489-518면.
- 유지황, 「우정의 정치학 -토마스 아퀴나스와 자끄 데리다의 우정 이해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42집, 2016, 1-36면.
- 이가야,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박완서 작품 속에 나타난 유년의 정체성과 장소」,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제53집, 2011, 195-222면.

- 이경, 「잠을 통해 근대 가부장제라는 말뚝에서 풀려나기 -〈엄마의 말뚝〉 1,2,3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 연구』 제31권 제2호, 2021, 7-35면.
- 이정숙, 「〈서 있는 여자〉, 그 서성거림의 두 가지 방식」,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신청어문』 21, 1993, 33-58면.
- 장동진·마상훈, 「인(仁)과 우애(friendship)의 정치철학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5권 1호, 2016, 227-263면.
- 장미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니코마코스 윤리학』 8, 9권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제28호, 2022, 65-91면.
-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 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6, 23-48면.
-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17권 제1호, 2011, 71-92면.
- 조희경,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존재론적 모험’의 양상」,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제31집, 2010, 601-629면.
- 최경희, 「〈엄마의 말뚝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9권, 1996, 118-139면.
- 허병식, 「성장의 서사와 글쓰기의 소명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연작」, 한국불교사연구소, 『문학 사학 철학』 통권 8호, 2007, 107-122면.